

## ‘2016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 개최



2016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가  
지난 3월 25일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정중)가 주관하는 ‘2016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가 지난 3월 25일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건설기술인협회 김정중 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 해외건설협회 박기풍 회장 등 건설단체장과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부인사를 비롯해 건설기술인 1천여명이 참석했다.



2016 건설기술인의 날에 참석한 내외귀빈  
(사진 첫째줄 왼쪽 첫 번째, 이상일 회장)

이번 행사에서는 광영필 (주)도화엔지니어링 회장이 상하수도분야 기술 개발의 선구자 역할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위 선양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총 31명의 건설기술자들이 정부 포상과 표창을 수상했다.

김정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중장기 로드맵을 확립해 글로벌 경쟁력을 점차 강화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국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로봇·인공지능·센서·IoT 등 첨단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